

한미약품, 비만약 판 바꾼다... 감량 넘어 '근육 보존' 승부수

잔트루타이드, 국제 일반명 획득
美 임상 2상... 내년 상반기 종료
에페, 이달 일부 의료기관서 처방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체중을 얼마나 줄이느냐'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빼느냐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기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LP-1) 계열 치료제가 우수한 감량 효과에도 불구하고 근육 손실과 요요 현상이라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체중 감소의 질'을 높이는 차세대 치료제 개발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시장 변화의 중심에서 한미약품의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LA-GLP/GIP/GCG) 후보물질 'HM15275'가 세계 보건기구(WHO)로부터 국제 일반명(INN)을 공식 부여받으며 글로벌 베스트 인 클래스(Best-in-Class) 도약을 향한 핵심 이정표를 세웠다.

25일 국내 제약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최근 WHO가 HM15275의 국제 일반명(INN)을 '잔트루타이드'로 최종 확정했다. INN은 전 세계 의약품 성분을 표준화해 혼동을 방지하고 연구 및 규제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 제정되는



‘뉴 한미’

/한미그룹.

명칭이다. 특히 글로벌 신약 자산으로서의 공식적인 가치와 인지도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잔트루타이드’라는 명칭 자체에 한미의 개발 철학이 집약되어 있다. 최고와 균형을 상징하는 접두사 ‘잔’과 삼중 수용체 작용제를 뜻하는 접미사 ‘트루’, 펩타이드 계열을 나타내는 어미 ‘타이드’를 결합해 ‘최상의 균형을 지향하는 차세대 삼중작용제’라는 전략적 정체성을 담았다.

잔트루타이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GIP(위 억제 펩타이드), G

CG(글루카곤) 등 세 가지 수용체의 작용을 한미의 인크레틴 연구 노하우로 최적화해 정밀 설계한 펩타이드 신약이다. 위 절제 수술을 능가하는 25% 이상의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를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받는 대목은 ‘근 손실 최소화’다. 기존 GLP-1 단일제나 이중작용제는 체중 감량 과정에서 전체 감량 수치의 20~40%가 제지방(근육 등) 감소로 이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었다. 반면 잔트루타이드는 신체 대사를 최적화하는 기전을 통해 체지방 중심의 감량을 유도하고 근육을 보존함으로써 고도비만 환자 및 대

사질환 동반 환자에게 한 차원 높은 치료 옵션을 제시한다.

현재 잔트루타이드는 미국에서 비만 및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오는 2027년 상반기 임상 2상 종료에 예상되며,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잔트루타이드가 한미약품 비만 신약 프로젝트 ‘H.O.P(Hanmi Obesity Pipeline)’의 중장기 핵심 축이라면, 선두주자인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빠른 상용화로 시장 진입의 물꼬를 튼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획득한 에페는 이달 일부 의료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처방이 개시된다.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허가까지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완주한 ‘국산 비만약 1호’다. 한미의 독자 플랫폼 ‘맵스커버리’를 적용해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으며, 한국인 대상 임상 3상에서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첫 달 약값이 12만 원대로 책정되어 20~30만 원대를 형성 중인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로벌 빅파마 제품 대비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평택 바이오폴

랜드 자체 생산을 통해 외산 약물의 고질적인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초기 시장 점유율 확대에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약품은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비만 치료 전주기 포드폴리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개념 비만치료제 ‘LA-UCN2(HM17321)’, 세계 최초 펩타이드 기반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LA-MSTN(HM500197)’ 등을 확보했다.

HM500197의 경우, 펩타이드 제형으로 설계되어 GLP-1 계열과의 병용 및 복합제 개발이 용이하다는 차별점을 갖췄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 중인 마이오스타틴 억제 후보물질들이 분자량이 큰 항체(Fc-fusion) 기반이라 인크레틴 계열과의 복합제 개발이 까다롭고 안전성 우려가 있다.

한미약품 미래성장부부장 최인영 부사장은 “잔트루타이드의 국제 일반명 공식 등재는 한미의 유망 R&D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을 확보하고, 글로벌 신약 자산으로서의 미래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SK바사, AI로 백신 생산 효율 높인다

AI 기반 ‘수율 가이드 Agent’ 적용
연구개발 등 전사적 AI 전환 확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생산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며 제조 수율과 품질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백신 공정 현장에서 검증된 AI 성공 사례를 연구개발(R&D)과 임상-허가, 품질 관리 등 전사 영역으로 확대해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생산 효율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3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AI-바이오 신약허브 글로벌 서밋 인천’에 참가해 AI 활용 현황과 향후 전사적 인공지능 전환(AI)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와 바이오 기술의 융합을 통한 신약개발 혁신과 국내외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 산업 주요 기업으로 실제 생산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한 경험을 공유하고 생태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열린 ‘2026 AI-바이오 신약허브 글로벌 서밋 인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이용 AX 기획팀장이 발표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날 SK바이오사이언스 이용 AX 기획팀장은 ‘AI, 현장의 허들을 넘기까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안동 LHOUSE의 독감백신 생산 공정에 적용된 AI 기반 ‘수율 가이드 Agent’ 사례를 공개했다. 백신은 세포 배양과 정제 등 공정 조건에 따라 생산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특히 독감백신은 매년 변하는 바이러스주에 맞춰 최적의 생산 데이터를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AI 시스템은 축적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를 파악하고 공정 조건을 최적화한다. AI가 분석과 권고 역할을 수행하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공정의 변동성을 줄이고 생산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린다.

/이청하 기자

한울바이오파마, 바토클리맵 중국 허가

첫 글로벌 상용화 결실

대용제약 특수관계 기업 한울바이오파마가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 중인 차세대 면역항암·자가면역 신약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글로벌 상용화 결실을 맺었다. 중화권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신약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단계별 마일스톤과 판매 로열티 유입이 본격화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울바이오파마는 중국 파트너사 하버 바이오메드가 FcRn(타이 Fc 수용체) 억제 항체 신약 ‘바토클리맵’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최종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한울바이오파마가 독자 개발해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 이전한 바토클리맵과 아이메로프루바트 등 파이프라인 전체를 통틀어 나온 첫 번째 신약 승인이다.

이번 품목허가는 항-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Anti-AChR) 양성인 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환자에 쓰이는 170mg(1m

L/바이알) 용량의 피하주사제(SC) 제형에 대해 이뤄졌다.

허가의 바탕이 된 중국 내 27개 기관 임상 3상 시험에서 바토클리맵은 약효와 빠른 발현 속도,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1차 평가지표 측정 결과, 바토클리맵 투여군의 58.2%가 첫 번째 치료 주기 동안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기준치 대비 3점 이상 개선되어 4주 이상 유지됐다. 이는 위약군(31.3%)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로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 특히 바토클리맵 투여군에서는 약물 투여 단 2주 차부터 빠른 증상 개선 반응이 확인됐다.

주요 2차 평가지표에서도 위약군 대비 확연한 임상적 우위를 나타냈다. 정량적 중증 근무력증 점수가 지속해서 개선된 환자 비율(64.2% 대 40.6%)과 증상이 거의 사라진 최소 증상발현상태 도달 비율(25.4% 대 4.7%) 등 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갈랐다.

/이청하 기자

풀무원, 구조 동물에 사료 2톤 기부

먹거리 지원·보호시설 환경 개선

풀무원이 구조 동물의 먹거리 지원과 보호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풀원은 펫푸드 브랜드 풀원아미오 제품 약 2톤을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고 임직원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풀원은 지난 23일 사단법인 길동무와 나눔미천사가 운영하는 쉼터에 고양이·강아지 사료와 간식을 전달했다. 기부 품목은 고양이용 ‘간강담은’ 식단 컷 제품과 ‘아’, 강아지용 ‘건강담은’ 식단 독 피부&

모질 케어’, 고양이 푸레 ‘자연담은’ 푸레 닭가슴살과 당근’ 등이다.

풀원 임직원들은 쉼터 운영진 및 봉사자들과 함께 후원 물품을 옮기고 시설 공간을 정비하는 등 구조 동물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참여했다. 동물 구조 활동을 이어온 구독자 37만명 규모의 유튜브 ‘으냥’도 이번 봉사활동에 동참했다.

풀원아미오는 유기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먹거리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충남 당진시의 유기견 쉼터 ‘동공당’에 강아지 사료 420kg을 기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동화약품, 약학 분야 학술 공로자 선정

약학공로상에 손의동 명예교수

동화약품이 국내 약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퇴행성 뇌질환의 새로운 치료 길을 연 연구자들의 학술 공로를 조명했다.

동화약품은 부채표 기송재단과 대한약학회가 지난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제8회 윤광열 약학 공로상’에 손의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를, ‘제19회 윤광열 약학상’에 조

동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를 각각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약학공로상을 수상한 손의동 명예교수는 대한약학회장, 대한약학회장,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장 등을 역임하며 약학 6년제 평가 체계와 국가시험 제도를 정립했다. 국내 약학 교육의 틀을 다졌고 세계약학연맹 서울총회 개최 준비, 한·중·일 학술 교류 등을 이끌며 한국 약학의 글로벌 입지를 확립했다.

/이청하 기자



지난 22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대한약학회 창립 8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김형식 대한약학회장(왼쪽부터), 손의동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명예교수, 유준하 동화약품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화약품